

“ 지도자들의 위선을 경계해야! ”

■ 이종윤 원로목사

우리 사회에서 속이 빈강통 같은 사람이 애국심이 강하고 정의감이 투철한 진실된 지도자처럼 포장되어 고위 공직자 행세를 하다가 쇠고랑을 찢다는 서글픈 뉴스를 본 적이 있다. 그런 사기꾼을 세인들은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한다. 임기웅변의 재주가 뛰어나고 눈가림에 명수가 되어 남의 눈을 흐리게 하여 세인으로부터 자신의 영달을 찬탈한 정치 사기꾼이다. 당장은 출세 가도를 달리는 사람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그런 자는 결국 사회와 자신에게 엄청난 손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자를 머리가 좋은 사람이라 말하는 사람들의 머리아 말로 별 볼 일 없는 머리라 해야 할 것이다.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은 전체를 보고 멀리 보는 정직한 사람이다.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을 쏟거나 일의 결과를 미리 내다볼 줄도 모르는 이는 쇠고랑을 차거나 패가망신하는 머리가 나쁜 사람들이다.

성실과 정직한 사람이 인정을 받는 사회

건강한 사회에서는 성실하게 자기 일을 하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인정을 받는다. 그러나 오늘 우리 사회는 쟁 잡는 놈이 매라고 거짓말을 하고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돈을 벌고 사회적 지위에 오른 사람을 성공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고 그를 부러워하게 되었다면 젊은이들이 자기도 그런 방법으로 출세해 보겠다는 유혹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경우 우리 모두는 그런 강도떼를 만드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셈이 될 것이다. 상전에게 아부하거나 국민에게 아첨하며 국회의원 공천을 받을 때와 당선 후 정강이 돌변하고 부정직한 방법으로 세인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사람은 대낮에 칼 들고 돈 뺏는 강도와 오십보 백보일 것이고, 그런 사람을 존경하고 부러워하는 사람은 강도를 부러워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른가?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고 예수님은 가르치셨다. 기회주의자 되지 말고 옳은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할 수 있는 진실하고 정직한 말과 행동을 하라는 것이다. 하나님도 백성들도 그런 지도자를 그리워하고 있다.

위선자는 망한다


우리 사회의 병리현상을 진단해 보면 그 밑바닥에 위선의 뿌리가 깊이 심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인간에게는 누구나 어느 정도의 위선이 있다. 마음속에 있는 그대로를 노출시킨다면 다른 사람과의 교제는 거의 불가능해 질 것이다. 그러나 성직자나 교육자들은 위선적이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인데도 가장 위선적이 될 유혹을 많이 받는다. 정치인들이나 비즈니스 하는 이들의 위선은 그들 삶에서 보편화되어 있다. 그래서 니버라는 미국의 신학자는 하나님께서 정치인들을 심판하시는 자(尺)막대기는 따로 만드셔야 할 것이라는 비아냥거리는 말을 했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그들의 위선은 항상 국가와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서 불가피한 것이라는 괴변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체면과 명분을 중요시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위선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특권층에 속한 이들은 항상 자신들이 누리는 특권이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주장해야 하기 때문에 심한 위선자가 된다. 자신들은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고 사회를 위해서 더 많은 희생을 치렀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더욱 큰 위선자가 된다. 백만원 을 받는 근로자에 비해 자신의 천만원 수입은 나라를 위해 감당해야 할 책임과 위험부담, 정신적 압박과 긴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며 그 백만원도 자기 같은 지도자가 있기에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나라도 사회도 자기 같은 지도자의 도덕성과 노력 때문에 유지된다고 거짓된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위선은 다른 거짓과 같이 자살 지향적이다. 위선의 도가 지나치면 그 정체가 밝혀지고 그 효과는 없어진다. 위선에 더 이상 속지 않는 훈련을 위선자들로부터 우리는 이미 받았다. 지도자들의 위선이 냉소적 반응으로 나타나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큰 비극을 맞게 될 것이고 위선자는 스스로 망하게 될 것이다. 회칠한 무덤이라고 책망을 받은 위선자의 대명사인 바리새인들은 독사의 자식들로 불려졌다. 위선자는 사탄의 자식이라 했으니 하나님 면전에서(Coram Deo) 아무리 위선자들이 득실거려도 궁극적으로는 정적이 승리한다는 우리의 이상과 신되는 잃지 말아야 하고 지도자들의 위선은 경계해야 할 것이다.

—한국장로신문 [제1457호] 2015년 5월 2일에서 발췌—

우리의 비전 (vis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p>부 목 사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서준권 전도사(교육담당) David John Khokhar Jimmy Eppley 선 교 사 강야콥주한나, 김원호(동아시아), 전광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바켓잔(카자흐스탄) 스프로토바료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제울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범연·김리정, 우상식·김정옥, 이삭, 비스타라, 사지, 예녹(인도), 정상찬·홍성일(말라위),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손신일민매리(체코),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라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김인사·현해욱(아르헨티나), 홍남가·김인규(우크라이나),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 · 오정녀(캐나), 김종일·백순미(티키노동자), 훈쿠아 땅, 땅, 썬, 코, 카, 마이, 땅, 사무알, 레이, 난, 쌍, 썬다, 사무, 키움, 랑, 호라, 라베, 벨, 비에, 마움, 차, 짜우, 마카엘, 미얀마) 필리몬 프로산토, 수레시 수바소, 이경엽, 알로롱, 비시, 누뽀도, 보디소프, 린툼, 수란찬(방글라데시), 김태식, 윤왕모, 노신애, 이금순, 김명일, 김덕수, 군선교</p>		

	<table border="0" style="width: 100%;"> <tr> <td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td> <td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서울교회</td> <td style="font-size: 2em; font-weight: bold;">✝</td> </tr> <tr> <td style="font-size: 1.2em;">대한예수교장로회</td> <td style="font-size: 1.2em;">서울교회</td> <td style="font-size: 1.2em;">대한예수교장로회</td> </tr> <tr> <td colspan="3" style="font-weight: bold;">SEOUL PRESBYTERIAN CHURCH</td> </tr> <tr> <td style="font-size: 0.8em;">원로목사 Emeritus Pastor</td> <td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이종윤</td> <td style="font-size: 0.8em;">Lee Jong-Yun, Ph. D., D.D., D. D.</td> </tr> <tr> <td style="font-size: 0.8em;">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td> <td style="font-size: 1.2em; font-weight: bold;">박노철</td> <td style="font-size: 0.8em;">Park, No Cheol</td> </tr> <tr> <td colspan="3" style="font-size: 0.8em;">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td> </tr> <tr> <td colspan="3" style="font-size: 0.8em;">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td> </tr> </table>	✝	서울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노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	서울교회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대한예수교장로회																				
SEOUL PRESBYTERIAN CHURCH																						
원로목사 Emeritus Pastor	이종윤	Lee Jong-Yun, Ph. D., D.D., D. D.																				
담임목사 (안식) Senior Pastor	박노철	Park, No Cheol																				
135-835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210 210 Daechi-dong Gangnam-gu Seoul, Korea																						
Tel.558-1106 / Fax.558-2107 http://seoulchurch.or.kr																						

“하나님의 약속”

■ 창 12:1~3

성경에 기록된 내용과 같이 인류의 시조는 아담이며 믿음의 시조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시조가 된 출발은 “내가 너로 큰 민족(a great nation)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2-3) 말씀 때문입니다. 약속이란 미래의 내용을 서로 결정하는 것으로써, 서로 어떻게 하자고 합의된 결론입니다. 일반적인 약속의 표현은 Promise, 세상 속의 일상적인 상호간의 약속과 Covenant, 하나님의 약속(언약)으로 구분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언약)은 세상적인 약속과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약속을 인간을 대표해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셨습니다.

1.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2:1-2에 나온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땅으로 떠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은 아브라함이 사는 곳보다 훨씬 더 험하고 척박했지만 아브라함은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이같이 믿음과 순종을 숭순수범 하여 행하였고, 자신의 후손들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약속을 믿게 함으로 순종하도록 했습니다. 아람은 형 에서와 다투다가 고향을 떠나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20여년 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창 33:18~20). 요셉도 형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애굽에 노예로 팔려 가는 등 갖은 고생을 다하다가 이집트의 총리까지 되었지만 결국은 조상들이 있는 가나안 땅에 묻혔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조상들을 포함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사모하고 그리워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우리들도 신실한 언약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의 축복하시는 곳, 하나님이 정작케 하시는 가나안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2.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들의 생각과 상상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세상적인 고통은 결과가 아닌 과정임을 알게 됩니다. 지금의 쓰라림이 안타까울 수도 있지만 주님의 쓰임에 따라서 주님은 우리들을 그 길로 가게 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한이 아닌, 하나님을 믿으며 삼키고 감사해 하는 모든 이에게 차별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이행하십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보편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적이며 영구성이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종착역은 하늘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감사와 찬양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결론을 맺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 또 모세가 애굽의 광야에서 고난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출 3:10).

맺는 말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여 고령의 몸을 이끌고 험하고 멀기만 한 사막길, 광야길을 건너 가나안땅으로 들이던 아브라함과 그 믿음의 후손들에 대해 하나님께로서 축복을 내리실의 약속을 지금까지 지켜지고 있음을 믿으시는 서울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이같이 놀라운 약속을 기억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신실한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주 권용평 목사(서울베다니교회 원로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서준권 목사	송인권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안인호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최형열 장로

입례송 Prelude	오르가니스트
예배에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36:1-2...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인 도 자
* 찬 송 Hymn	5(3)..... 다 함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다 함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127(사순절 4)...	다 함 께
* 송 영 Doxology	1(1) 다 함 께
기 도 Prayer	말 은 이
찬 송 Hymn	27(27).... 다 함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롬 1:16-17...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다 함 께
봉헌 Offering	다 함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함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설 교 자
찬 양 Anthem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다 함 께
설 교 Sermon ... 믿음으로 살리라 ...	김재성 목사
* 찬 송 Hymn	336(383).... 다 함 께
* 축 도 Benediction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다 함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인도, 설교: 서준권 목사

목 도	다 함 께
성 시	시 18:1-3 인 도 자
찬 송	540(219) 다 함 께
기 도	손태현 집사
성 경	살전 2:13-16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 설 교 자
* 찬 송	546(399) 다 함 께
* 축 도	인 도 자
* 주기도송	다 함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인도, 설교: 서명철 목사

기 도	서희숙 권사
성 경	딤후 4:1-18 인 도 자
찬 양	찬 양 대
설 교	“내 곁에 계신 주님” 설 교 자
설 교	조원영 목사

새벽기도회(인터넷 영상)

오전 5시30분 피아니스트 이경화·홍혜란김영안박수강

설 교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렘 5:19) ◆ CANTANTES ET PSALLENTE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송재근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총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부	임마누엘	임범창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유태왕	최수향	박수강	윤주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평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창 12:3)		
영어예배	예루살렘	심상희		이승민1	지난주 성구			
수요 I 부	호산나	구민영	김윤지	홍혜란				
수요 II부	시 온	최유현	김예지	조현정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새 벽 예 배		오전 5시 30분(매일)
		인터넷 영상

교 회 소 식

◆ 모 임

1. 권사회(제1, 2, 살림)총회 및 월례회 / 26일(주) 3부 예배 후 101호

◆ 알 림

1. 1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9시-10시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에바다부 예배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청년부 다락방 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2.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3. 702호 예배

청소년 예배(중, 고등부) : 주일 오전 9시-10시

4.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5. 교회학교에서 섬기실 선생님들을 모십니다. (자세한 사항은 순례자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6. 은빛 찬양대 대원모집. (대상 우리교회 65세 이상 어르신 / 연습시간 및 장소: 매주 오후2시 502호)

* 더 이상 지체 마시고 찬양의 은혜를 함께 누리러 오세요 *

7. 2017년도 4월 첫 세례식 실시

4월 세례식이 4월 5일(수요일) 저녁 7시에 있을 예정입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께서는 3월 26일까지 문답 청원서 작성하여 사무국으로 제출해 주시고

세례식 거행을 위해 4월 5일 저녁 수요예배에 참석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장소와 시간은 주후 다시 재 공지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세례교육부 임승한 집사(010-7743-3223)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김재성 목사 소개

총신대 신학과(B.A)

합동신대원(M.Div.)

서울대 대학원(M.A)

칼빈 신대원(Th.M)

Westminster Seminary(Ph.D.)

합동신학대학원 조직신학교수 및 칼빈연구소장

국제신대원 부총장

WEA 신학위원

한국개혁신학회장

제5회 신학자대상수상(한국복음주의 신학회)

종교개혁500주년기념 한국공동학술대회 공동준비위원장

◆ 장 례

1. 故 함정자 성도(1교구 김동건 집사의 모친, 신소영 집사의 시모) /

3월25일(토) 별세, 27일(월) 천국환송예배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54명	239명	276명	1,369명	157명

수입, 지출 내역 보고(3/26)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비 고
3월19일	전주이월	109,095,310		
"	헌 금	31,665,900		십일조:16,552,000 주일:5,257,200 감사:5,760,000 교회학교:206,700 기타:3,890,000
"	제3보병사단 지원금 잔액 환입	497,830		
"	교회학교교육비		1,600,000	영어예배부 부교역자 사례 외
"	선교비		300,000	연세의료원 후원
"	구제비		1,600,000	최정숙 권사 외 후원
"	비전2020		30,000	육군 제3보병사단 진중세례식 성찬떡
"	출 판 비		270,000	순례자 발행
"	인 건 비		13,187,900	경비, 청소집사 용역비
"	사무용품비		18,000	전지 외 구입
"	통신비		1,514,230	교회 전화료 외
"	차량유지비		652,880	8190 주유 외
"	복리후생비		176,500	병원비 외
"	수도광열비		36,470	사택 도시가스료
"	환경유지비		165,000	왁스, 세제 구입
"	수선유지비		1,514,900	사택 누수탐지 검사비 외
"	식당운영비		666,160	전체성도 식사
	합 계	141,259,040	21,732,040	잔 액 ¥119,527,000

*2017년1/4분기선교비:120,388,320원, 농어촌교회후원금; 20,900,000원

군선교비: 19,800,000원 수입(헌금)부족으로 집행하지 못 함.

문화인의 교만

문화 활동은 인간이 타락하기 전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타락한 문화활동을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죄로 오염된 인간 문화는 구원이 요청되고 새로워져야한다.

인간 문화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의 판단과 인정만을 요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대상이 되어진다면 인류 문화는 위기에 놓여있다고 해야할 것이다. 문화인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이 교만의 병이다. 자신을 절대화하고 이기적인 편리주의를 추구하며 현대판 바리새인처럼 타인에 대하여는 무관심하거나 비판적이다. 교만이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면 맑은 영혼이 시들고 깨끗한 감정에 금이 가고 지성작용조차 허물어지게 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종윤 원로목사 신앙칼럼 ‘순례자’에서